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청소년의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과의 관계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호 유 나

청소년의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과의 관계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호 유 나

인 준 서

호유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청소년기에는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 학급에서 질문, 발표, 시험, 운동, 음악연주 등을 통해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회공포증이 10대 중반에 발생하여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만성적인 결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환경적·유전적 요인들이 사회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혹은 앞으로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문지 600부를 배포하고 381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LaGreca (1998)가 개발하고, 오경자·양윤란이 타당도를 검증한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SAS-A), 문혜신과 오경자(2002)의 수행불안 하위척도, Caster, Inderbitzen와 Hope(1999)가 개발하고 오경자·양윤란이 타당도를 검증한 가족 환경 질문지(FEQ: Family Environment Questionnaire), Grych 등(1992)이 개발하고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타당도를 검증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1992), Rezenick, Hegeman, Hegeman, Woods와 Jacobs(1992)가 개발하고 오경자·양윤란이 타당도를 검증한 자기 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척도(Retrospective Self-Report of Inhibition;RSR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 T-Test, 상관분석,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 사회불안 모든 변인 간에 상관이 있으며, 행동억제 기질 44.8%, 부부갈등 2.8%, 가족 사회적 환경 0.8%로 사회불안을 설명하고 있었다. 사회불안을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인불안은 행동억제 기질 38.2%, 부부갈등 4.0%, 가족 사회적 환경 1.4% 순으로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으나, 수행불안에서는 행동억제 기질이 39.3%로 그 원인을 설명하였고, 부부갈등과 가족 사회적 환경은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평가하면 더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행동억제 기질의 ‘수줍음’은 전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었다. 어린시절의 분리불안은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새로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은 어린시절 사회적 회피나 단순공포로 나타날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기에 많이 이루어지는 수행에서 나타나는 불안은 어린시절 사회적 회피로 나타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부모의 부부갈등도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특히 부부갈등 시 청소년이 지각하는 위협과 해결여부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부갈등에 대한 내용도 청소년의 일반상황에 발생하는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부부갈등 시 청소년 자신과의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은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은 사회불안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나, 부모가 비사교적이며 자녀에게 타인을 많이 의식하게 하는 것을 대인불안에, 더 구체적으로는 수치심을 주는 양육 환경은 일반적 상황에 두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문제화되기 전에 어린시절 행동억제 기질을 파악하고 부모의 부부갈등과 가족 사회적 환경의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부모 및 아동·청소년 교육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치료과정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기에 발병하기 쉬운, 사회불안의 임상적 양상인 사회공포증(Social phobia)으로 발전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치료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 차

논문 개요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이론적 배경 | 4 |
| 1)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 | 4 |
| 2) 가족 사회적 환경과 사회불안 | 7 |
| 3) 부부갈등 | 10 |
| 4)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 | 14 |
| 3. 연구 문제 | 19 |
| | |
| II. 연구 방법 | 21 |
| 1. 연구 대상 | 21 |
| 2. 측정 도구 | 21 |
| 3. 연구 절차 | 24 |
| 4. 자료 분석 | 24 |
| | |
| III. 연구 결과 | 26 |
| 1. 전체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6 |
| 2. 사회불안,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의 차이검증 ... | 27 |
|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 29 |
| 4.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32 |

5. 각 변인의 하위요인들이 사회불안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37

IV. 논의 및 제언 47

1. 결과 논의 47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51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 | |
|--|----|
| <표 1> 연구 대상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 26 |
| <표 2> 사회불안,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의 남·여 비교.. | 28 |
| <표 3> 사회불안,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의 상관계수 | 30 |
| <표 4> 대인불안, 수행불안과 각 변인 하위요인간의 상관계수 | 31 |
| <표 5>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33 |
| <표 6>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34 |
| <6-1> 두려움-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35 |
| <6-2> 두려움-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 36 |
| <6-3> 두려움-일반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36 |
| <표 7>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37 |
| <표 8> 사회불안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38 |
| <표 9> 대인불안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 | 40 |
| <9-1> 두려움-부정평가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 | 42 |
| <9-2> 두려움-새 평가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 | 43 |
| <9-3> 두려움-일반상황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 | 44 |
| <표 10> 수행불안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 | 46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불안의 임상적 특징인 사회공포증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상황이나, 평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핵심증상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러한 증상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일상 사회상황에서 지속된다면 심리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학업 및 직업을 비롯한 대인관계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심각한 사회불안은 사회상황에서 적절한 사회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적응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된다(Albano, Chorpita, & Barlow, 1996; Kessler, McGongle, Zhao, Nelson, Hughes, Eshleman, Wittchen, & Kendler, 1994; Last, Perrin, Hersen, & Kazdin, 1992; Rapee, 1995). 청소년기에는 인지적 성숙과 행동이나 외모가 타인에게 평가대상이 되는 것을 많이 인식하게 되는 시기이기에, 학급에서 질문, 발표, 시험, 운동, 음악연주 등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Ameis, Gelder, & Shaw, 1983).

최근 연구에서 사회불안의 임상적 양상인 사회공포증의 평생 유병률은 남성의 경우 11.1%, 여성의 경우 15.5%로 주요우울장애(17.1%)와 알콜 의존(14.1%)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Kessler, et al. 1994). 주로 10대 중반에 발생하여 만성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Schnerier, Johnson, Hornig, Liebowitz &

Weissman, 1992; Wittchen, Essau, von Werssen, Krieg & Zauding, 1992). Essau, Conradt와 Peterman(1999)은 12세-17세의 독일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 1035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51%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사회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해 경미한 수준의 사회불안은 청소년기에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공포증은 청소년기에 발생하며, 다른 불안장애 및 정신과적 질병과의 공존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정신건강에 매우 유해한 요인으로 나타났다(Lecrubier, Wittchen, Faravello, Bobes, Patel & Knapp, 2000).

사회불안이 높거나 사회공포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대인 관계나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입, 교육 수준, 결혼 비율 등의 지표에서도 정상 집단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Quilty, Ameringen, Mancini, Oakman & Farvolden, 2002; Alden & Crozier, 2001; Lepine & Pelissolo, 2000). 이는 결국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사회적 상황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전반적인 삶의 질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불안의 발현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이 장애를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에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사회불안의 원인과 지속하게 하는 요인들로는 아동의 기질, 부모의 양육, 외상경험 등 다양한 유전적, 환경적 변인에 관해 연구되어 왔다(Vasey & Dadds, 2001).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환경적 요인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과 부부갈등을 연구하고, 다음으로 유전적 요인으로 행동억제 기질을 중심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첫째, 사회 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의 가족 사회적 환경에 관한 사항은 사회

불안과 직접적 관련성을 보이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정도, 가족의 사회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Bruch(1989)는 부모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자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양육 행동을 하며, 가족의 비사회성이 자녀의 사회불안을 조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 불안을 보이는 아동들의 부모 양육행동, 가족 환경에 관한 연구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부부갈등은 가족환경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데 이혼률이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부각되고 있다. 부부갈등은 아동의 공격성, 불복종, 행동 문제와 같은 외현화 장애(Externalizing disorder)나 우울, 불안, 사회적 고립과 같은 내면화 장애(internalizing disorder)와 관련이 많으며(Emery, 1982), 사회적 유능성(Emery & O'Leary, 1984), 학업 성취도(Long, Slater, Forehand & Fauber, 1988)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부갈등과 사회불안과의 직접적인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적인 주요요인으로 사회불안과 부부갈등의 직접적 관련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유전적인 요소로 행동억제 기질은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가 많이 서구화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 행동억제는 한 개인의 어린시절에 갖고 있었던 기질적인 성향으로 이 부분은 문화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동양과 달리 자기 주장적인(assertive) 행동특성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서구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행동억제는 자기 표현능력의 부족이나 자신감의 결핍으로 인식되고(Rubin & Asendorpf, 1993), 아동의 적응이나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sendorpf, 1991; Kochanska & Radke-Yarrow, 1992). 그러나 중국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오히려 아동의 행동억제가 또래간의 적응 및 학교생활 등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행동억제가 다르게 평가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동억제 기질은 경쟁적 사고가 팽배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부각 될 수 있기에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환경적 · 유전적 요인들이 사회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함으로써 임상적 장면에서 치료의 초점을 제시하여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공포증이라는 심각한 양상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

사회불안(Social Anxiety)은 친숙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주시되는 사회적 상황을 접하거나 그런 상황이 예상될 때 느끼는 불안한 정서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등의 사회적 상황을 끊임없이 접하게 되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지만, 그 강도와 지속성이 지나치면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건강한 적응에 방해를 받게 된다. 사회불안의 임상적 양상인 사회공포증(Social phobia)은 사회적 상황에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가 지나치게 강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이러한 정서로 인한 개인의 고통이 극심한 경우를 말한다. 사회공포증의 평생 유병률은 13%이상으로 다른 장애에 비해 높게 보

고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Anderson, Williams, McGee & Silva, 1987; Kessler, McGonagle, Zhao, Nelson, Hughes, Eshleman, Wittchen, & Kender, 1994).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IV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할 때, 일반인들이 사회공포증에 걸릴 확률은 3-13%이며,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외래 클리닉에서 불안장애 환자 중 10-20%가 사회공포증이라는 보고가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서울 소재 한 종합병원 신경과에서 보고한 10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처음 내원한 환자 중 4.5%가 사회공포증 환자였다고 한다(이시영, 신영철, 오강섭, 1994). 따라서 적지 않은 수가 사회공포증으로 고통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불안은 대인 관계나 발표 상황의 회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을 초래한다(Alden & Crozier, 2001).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사회적 상황을 피해 살아가기 어렵다. 사회불안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은 아동, 청소년기부터 관찰된다. 사회불안이 높거나 사회공포증 진단을 받은 아동,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학업 수행이나 또래 관계 등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보인다(문혜신, 2001; Beidel, Turner & Morris, 2000; Essau, Conradt & Petermann, 2002; Rapee, 1995).

사회불안은 어린 시절부터 개인에게 고통을 주며, 이러한 장애가 일생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chneier, Johnson, Horning, Liebowitz & Weissman, 1992; Wittchen, Essau, von Zerssen, Krieg & Zauding, 1992).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사회공포증 환자들은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더 의존하고, 임금이나 교육 수준이 낮으며,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하는 비율이 낮고,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등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Quilty, Ameringen, Mancini, Oakman &

Farvolden, 2002; Stein & Kean, 2000; Alden & Crozier, 2001; Lepine & Pelisslo, 2000; Schneier, Johnson, Hornig, Liebowitz & Weissman, 1992). 우리나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상황에 따라 약 25%(사교적 모임)- 55%(면접 시험)의 학생들이 중간 수준 이상의 불안을 보고하였다(조용래, 원호택, 1997). 또한 대학생 집단 중 9% 정도는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만남에도 중간 수준 이상의 불안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사회불안은 상황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적응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에 외국에서는 사회불안에 대한 관심은 오랜 기간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Liebowitz, Gorman, Fyer & Klein, 198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불안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적고, 그동안 사회불안이 간과되어 왔던 이유는 이 장애가 극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겉으로 증상이 쉽게 드러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사회불안은 개인이 내적으로 느끼는 불편감이 주요한 특징이 되며, 이 경우 본인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은 경우에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불안은 적응에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 임상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많은 연구결과들을 보면 사회공포증은 특정 공포증보다 늦고 공황장애보다는 일찍 나타난다고 발표되었다. 미국에서의 평균 발병 연령은 일반적으로 십대 중반에서 후반이다. 그러나 사회공포증이 이보다 훨씬 일찍 발병한다는 연구와 더 늦게 발병한다는 연구가 혼재되어 있다. 이는 사회공포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서울 소재의 종합병원 신경정신과에서 보고한 10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사회공포증의 발병 연령은 평균 19.5세였다. 17-19세까지의 32.0%로 가장 많았고, 14-16세가 21.8%를 차지하여 10대 후반에서 사회공포증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불안의 발병 시기와 연관성이 높은 청소년 시기이기에 청소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발병 요인들과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 사회적 환경과 사회불안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Schaefer, 1959; Bates & Bayles, 1988).

주로 일반적 상황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비교적 일관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공포증을 보이는 사람은 부모가 자신을 과잉보호, 과잉통제 했으며, 거부적이고 돌봄이 적고, 따뜻함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rrindell, Emmelkamp, Monsma & Brilman, 1983; Parker, 1979; Heimberg, 1994; Bobels, Oosten, Muris & Smulders, 1999). 다른 불안장애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광장공포증 환자는 자신의 부모가 따뜻하지 않다고 지각하는데 비해, 사회공포증 환자는 자신의 부모가 따뜻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 통제를 했다고 보고하였다(Parker, 1979). 이러한 일반적 상황에서의 양육태도는 불안장애 뿐 아니라 우울증 등 여러 장애와 두루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Rey, 1995; Carter, Sbrocco, Lewis & Friedman, 2001)

그러나 사회적 상황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Bruch(1989)는 이를 가족 환경이라는 개념으로, 타인평가를 지나치게

강조, 아동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킴, 가족의 사회성 부족이 자녀에게 사회적 상황에 공포를 갖도록 한다고 주장했는데,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회공포증을 보이는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부모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가족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빈도가 낮으며, 타인의 의견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수치심을 주는 것을 훈육의 도구로 삼았다고 보고하였다(Bruch & Heimberg, 1994). 사회공포증과 다른 불안 장애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 사회공포증을 보이는 사람은 광장공포증을 보이는 사람에 비해 부모가 자신을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고립시키고,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강조했으며, 가족의 사회성이 부족했다고 지각하였다(Bruch, 1989; 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

Caster, Inderbitzen과 Hope(1999)의 연구에서는 Bruch(1989)의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 척도(Parent Toward Child-Rearing Scale; PATCS)를 수정하여 가족 환경 질문지(The Family Environment Questionnaire)를 개발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모가 보이는 양육태도를 평가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①고립 ②타인의 평가 ③수치심 ④가족의 사회성 등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부모가 자신을 사회적 상황에서 고립시키고,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강조했으며, 수줍음이나 낮은 수행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가족의 사회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시 말하면, Bruch와 Heimberg(1994)는 부모의 사회적으로 불안한 행동이 자녀가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하는데 방해하고, 이는 결국 자녀가 이러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였다. 즉, 부모는 자녀가 여러 사회적 상황을 접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Beidel & Morris, 1995)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은 부모를 따라 다양한 사회적 상황

에 노출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고, 또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점점 그 상황에 친숙해지며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를 고립시키고 사회적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자녀는 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학습할 수 없으며, 이는 더욱 이들이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진다(Daniels & Plomin, 1995). 그리고 Bruch(1989)는 아동의 사회적 안녕과 능력의 수준은 직접적으로 부모의 사교성과 아동의 사회화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Beidel과 Morris(1995)는 부모가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부분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아동의 사회적 기회를 마련하는 책임이 오직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집으로 아동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가족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친구 집에 방문하는 등의 행동들은 자녀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행동의 모델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이 없다면 아동은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배울 수 없고 직접적으로 적절한 사회적 기회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Daniels & Plomin(1989)은 사회공포증 어머니들은 자신의 불안 때문에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을 회피하고, 따라서 아동이 이러한 사회적 공포와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모델링하여 사회경험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Buss(1980)는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부모는 자녀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녀에게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자녀로 하여금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Bruch(1989)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은 아동·청소년은 타인의 관심을 회피할 것이며, 특히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들의 주요 관심사는 가족의 사회적 공포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조사하여 회고적 모형으로 연구되었다. 이것은 부모의 자녀 양육형태와 가족 환경을 보고하는 것이다. Rapee(1995)는 가족 환경과 사회 공포간의 관계를 함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근래의 연구들은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주로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형태와 가족 환경을 함께 연구하고 있다.

3) 부부갈등

Coleman(1984)은 부부간의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를 부부 갈등이라고 정의하였고, Brommel(1982)은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상반된다고 믿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다고 하여 가족 관계적 측면에서 가족 갈등을 정의하였다.

현대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의 부부갈등은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접하는 매일의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런데 가정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이며 청소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청소년 자신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환경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부적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부부갈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갈등이 발생한 경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부부와 가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Gottman & Krokoff, 1989). 또한 자녀가 부모간의 갈등이나 분노를 관찰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대처기술과 능력

의 발달에 필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에게 인간관계나 삶에 있어서 불가피한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귀중하고 효과적인 학습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며 적응의 능력을 배우는 아동은 부모간의 불화에 매우 민감하여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1930년대 이후로 사회과학과, 심리역동분석가, 가족체계이론가 및 행동주의자들은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부부갈등은 생후 6개월부터 청소년 말기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Cummings, Ballard & El-Sheikh, 1991).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는 유형에 차이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ych & Fincham, 1990).

부부갈등의 빈도가 많을수록 아동은 더욱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정감을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심해진다(Cumming et al., 1988). Fantuzzo 등(1991)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간의 갈등이 언어적이건 신체적이건 모두 아동의 내·외현화 문제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심하게 싸울수록 아동의 분노, 슬픔, 걱정,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며, 부부갈등이 아동 자신에 관한 내용일 때 아동은 부적응을 더 많이 나타낸다(김소향, 1994).

그런데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은 전형적으로 부부간의 갈등, 분노, 적대감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부모가 논쟁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감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면서 논쟁을 할수록 자녀에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갈등상황에 대한 너무나 단순한 관점이며 궁

극적으로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 수도 있다. 부모가 논쟁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친밀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며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떤 부부는 사소한 의견 차이를 나타내는 것조차도 그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 의미와 해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표출의 형태, 즉 부모가 얼마나 드러나게 의견의 차이를 나타내는가가 아니고 부부갈등 상황 아래에 깔려있는 부정적 정서와 의미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련된 의문점은 아동이 단순히 부모가 서로에게 얼마나 자주, 심하게 분노를 표현하는가에 관심을 두는가, 아니면 그들이 부모 간 갈등의 의미와 언어에 담긴 함의를 좀 더 정교하게 평가하는가이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분노 상황에 대처하는 아동에 관한 인지맥락적 이론들(Grych & Foncham, 1990, 1993)에 따르면 아동이 갈등 상황에 노출됨으로써 받게 되는 영향은 인지적으로 중재된다. Grych & Fincham(1990)은 단순히 부부갈등상황에 아동이 어떻게 노출되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부부갈등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들은 아동이 그들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므로 부모간의 갈등에 대한 아동의 평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부모의 자기 보고나 부부간의 상호 관찰을 통해 측정된 부부갈등보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정도가 아동의 적응문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정도를 일관성 있게 예측해 주었다(Grych, Seid & Foncham, 1992). 부부갈등을 경험한 아동들의 즉각적인 감정반응(Cumming, Davies & Simpson, 1994), 대처행동 및 역기능적 반응(Grych & Fincham, 1993), 장기적인 심리적 적응 수준(Fincham, Grych & Osborne, 1994) 등도 제 삼자에 의해 관찰되거나 부모가 보고

한 부부갈등의 정도보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에 의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부갈등은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부부갈등은 빈도, 강도, 내용, 해결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 갈등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분노가 표현되는 갈등 상황(Cumming, Zahn-Waxler, & Radke-Tarrow, 1981), 불완전하게 해결된 갈등(Cummings, Ballard, EI-Sheikh, & Lake, 1991), 그리고 아동이 관련된 내용의 갈등(김소향, 1994; Grych, Seid, & Fincham, 1992)일수록 아동의 반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었다.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Johnson & O'Leary, 1987; Jouriles, Murphy, & O'Leary, 1989), 공격성(Johnston, Gonzalez, & Campbell, 1987; Holden & Ritchie, 1991), 비행/반사회적 행동(변영인, 1994; Emery & O'Leary, 1984; Peterson & Zill, 1986) 등과 같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우울증(Johnson et al, 1987; Peterson & Zill, 1986), 불안/위축(Long, Slater, Forehand, & Fauber, 1988; Holden & Ritchie, 1991) 등의 내면화 문제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Emery & O'Leary, 1984; Long, Forehand, Fauber, & Brody, 1987), 인지적 능력과 성적평점평균(Long et al, 1987), 학업성취도(조영란, 1993; Westerman & La Luz, 1995)가 부부갈등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가족의 해체 그 자체보다는 이혼 전과 후에 발생하는 부부갈등이 아동문제의 주된 원인임을 나타내고 있다(Emery, 1988; Forehand, Neighbors, Devine, & Armistead, 1994). 최근 연구로는 McCloskey, Figueredo와 Koss(1995)는 학대받는 여성의 아동은 학대받을 위험이 높고 가정폭력은 아동의 일반적인

정신병리를 예측케 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외국에서는 임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시켜 왔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사회불안과 부부갈등과의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 기질은 아동이 낯설거나 도전적인 상황에 처해서 불안해 하거나 힘들어하는 등 정서적 불균형을 나타내는 반응양식이나 행동이다(Kagan, 1989; Paker, Belaky, Putnam, & Crnic, 1997; Rubin, 2001). 이는 철회(withdrawal), 회피(avoidance), 불편감(uneasiness), 낯선 상황이나 사람, 대상 및 사건들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아주 초기부터 나타나는 행동특성이다(Garcia-Coll, Kagan, & Reznick, 1984). 행동억제 기질이 있는 14-31개월 유아들은 낯설고 새로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울고, 괴로운 소리를 내고, 괴로운 얼굴 표정을 짓고, 사회적으로 회피하고, 접근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행동억제 기질 아동들은 어두움, 낯선 상황 또는 사람에 대해 높은 불안과 공포반응을 보인다(Kagan et al., 1988; Reznick et al., 1986).

또한 행동억제를 할 때 일어나는 생리적인 반응들은 심장박동률, 심장박동률의 변화, 동공팽창률, 코티졸 및 노어에피네프린의 수준이었다(Asendorf, 1990, 1991, 1993; Broberg, Lamb, & Hwang, 1990; Kagan, Reznick, & Snidman, 1987). 즉, 도전 상황에 있을 때, 이들은 더 높은 심장박동률을 보이고 이것이 지속된다(Garcia-Coll, Kagan, & Reznick, 1984). 나이가 들어도 행동억제 기질이 있는 아동들은 시험을 보는 동안에 동공 팽창

이 더 크고, 실험실과 집에서 분비되는 침의 코티졸 수준이 더 높았다(Reznick et al., 1986). 또한 노어에피네프린 활동 수준이 더 높을수록 행동억제적 특징이 더 많았다(Kagan, Reznick, & Sniderman, 1987). 이처럼 행동억제는 단지 반응적인 행동 스타일이기보다 생리적인 특징을 가진 기질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Gray의 모델을 기초로 인간의 행동억제 체계를 설명한 Asendorpf(1993)는 연령의 변화에 따라 행동 억제를 유발하는 자극도 변화하여, 대표적인 유발자극은 낯설음(novelty)과 사회적인 평가(social evaluation)라고 요약하였다. 첫 번째 자극인 낯설고 친숙하지 않은 자극요인은 개인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작용하므로 당연히 경계반응을 일으키고 그에 접근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하는 매우 강한 자극제가 되는데,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행동억제를 일으키는 보다 강한 자극제로 작용한다. 두 번째 자극은 ‘평가받는 상황’ 즉 ‘사회적인 평가’이다. 사회적인 평가로 인해 유발되는 행동억제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동기는 있으나 그들로부터 불만족스러운 반응이 예상될 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러한 종류의 행동적인 억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는 인지능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이 받을 인상에 대해서도 숙고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필요로 한다(Schlenker & Leary, 1982). Asendorpf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관심 때문에 야기되는 이러한 유형의 행동억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에 그 근원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동억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회적인 행동억제(social behavioral inhibition)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행동억제와 사회적인 행동억제는 서로 관련된 특성이며, 행동억제의 발달 과정에서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이러한 행동 유형은 근본적으로 낯설음에 대한 반응으로 유발되고 이것이 발달하면서 낯설

지 않은 상황에까지 확대되는 특성임을 고려할 때 혐의의 의미로 보면, 낮은 것에 대한 위축행동은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로 규정되고, 익숙한 사회적 상황에서 보이는 위축행동은 수줍음(shyness)으로 규정할 수 있다(이미정, 1997). 그러나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행동억제의 발달과정이 친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처음 시작되어 점차 사회적 평가에 의한 두려움도 함께 작용하므로 초기의 반응이 보다 일반적인 영역에까지 확대되어 간다는 발달과정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위의 개념들을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행동 억제(behavioral inhibition)로 규정할 수 있다.

행동억제 기질에 관한 연구는 개인이 타고난 기질적 특성의 안정성 및 발달에 대한 Kagan과 Moss(1962)의 대규모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특히 낮은 것에 대한 두려움 반응인 억제적 행동(inhibition behavior)이 개인의 발달과 더불어 변화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안정되는 특성인지를 연구하였다(Park, Belsky, Putnam, & Crnicet, 1997). 이후 행동 억제의 일관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의 공통된 보고는 행동억제의 특성은 연령이 증가해도 일관성 있게 안정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었다(Kagan, Reznick, Snidman, Gibbons, Johnson, 1988; Moskowitz, Schwartzman, & Ledingham, 1985; Olweus, 1984; Rothbart, 1986). Kagan(1989)은 생의 첫 3년에서부터 아동기·청년기에 이르는 과정동안 지속적으로 보유되는 특성 중의 하나가 행동억제 기질이라고 주장하였다(Kagan, Reznick, Clark, Sndman, & Garcia-Coll, 1984; Kagan, Reznick, Sndman, Gibbons, & Johnson, 1988). 행동억제와 관련된 생리적 특성을 연구한 보고(Gerston, 1986; Reznick, Gibbons, Johnson, McDinough, 1989)들도 연령의 변화에 관계 없이 이러한 특성의 지속성에 동의하였다. Asendorpf(1990) 역시 4세에서 8세에 이르는 동안 아동들이 낮은 성인에게 보이는 행동억제 성향간의 상

관계수는 .62로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일단의 연구들(Beksky, Fish, & Isabella, 1991; Calkins, 1994; Engfer, 1993; Park et al. 1997)은 지금까지 행동억제 연구들은 면밀히 살펴본 결과, 연령이 증가해도 행동억제 기질이 변화되지 않고 안정적이었던 경우는 그러한 특성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낮게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되었고 행동억제 기질이 양극단이 아닌 중간 정도에 속한 보다 많은 대상들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러한 특성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Kagan, Snidman, & Arcus, 1993; Kerr, Lambert, Stattin, & Klackenberg-Larsson, 1994; Mcneil & Persson-Blennow, 1982). 또한 행동억제 기질이 양극단인 경우 비록 그 안정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초기와의 상관이 더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Asendorpf, 1990; Reznick et al., 1986; Kagan et al., 1988).

한편, 행동억제 기질은 이후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특히 서구에서는 자기 표현능력의 부족이나 자신감의 결핍으로 인식되고(Rubin & Asendorpf, 1993), 아동의 적응이나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sendorpf, 1991; Kpchanska & Radke-Yarrow, 1992). 행동억제 기질은 문화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태리 연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중국이나 한국에서 많이 나타나 (Chen, Hasting, Rubin, Cen & Stewart, 1998; Park & Belsky, 1998) 그 의미가 다른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낯선 장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일반적 행동억제와 낯선 어른과의 관계가 포함된 사회적인 행동억제 모두 높을 때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행동억제에 강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Kochanska 등, 1992).

행동억제 기질과 불안장애의 관계를 보여주는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억제적 성향을 갖고 있는 아동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불안장애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Rosenbaum, Biederman, Hirshfeld, Bolduc, Kagan, Snidman, & Reznick, 1991), 또한 행동억제 기질을 가진 아동을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두 개 이상의 불안장애를 갖고 있으며, 불안장애가 없었던 아동도 추후 조사를 통해 불안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Biederman et al, 1993). 이런 연구들은 방법론적인 제한점들이 다소 있어 논란거리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행동억제 기질과 불안장애 사이에 분명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행동억제는 사회공포증의 원인 및 발생과정에 기여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기질적 특성으로 아동기의 여러 불안장애에 대한 일반적 취약성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Mick & Telch, 1998). Hayward, Killen, Kraemer와 Taylor(1998)는 2242명의 고등학생 대상으로 초등학교 시기의 행동억제기질을 자기보고를 통하여 평가한 결과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청소년들은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행동억제기질이 낮은 집단에 비해 4-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hwartz, Snidman과 Kagan(1999)의 장기종단연구에서는 2세 때 행동억제성향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었던 집단의 62%가 12년 후 사회불안을 보고한 반면, 낮은 집단은 27%만 사회불안을 보고했다.

그리고, 억제된 아동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야하는 상황이나 무엇을 하도록 요청받는 상황에서 공포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Biederman et al., 1990). Rosenbaum과 동료들(1991)은 행동억제 기질을 가진 아동의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특별히 사회공포증과 회피장애 및 과잉불안을 경험한 적이 더 많았음을 밝혔다. 이처럼 행동억제 기질은 여러 가지 불안장애들과 상관이 있지만 사회평가 불안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장애 즉 사회공포증과 더욱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 사회적 환경, 행동억제 기질은 기존 연구를 통해 사회불안과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밝혀졌으나 아직 청소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많은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불안과의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앞에서 언급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 한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높으면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낄 뿐 아니라 학업 수행이나 또래 관계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보인다(문혜선, 2001; Beidel, Turner & Morris, 2000; Essau, Conradt & Petermann 2002; Rapee, 1995)는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평균 발병 연령이 십대 중반에서 후반이라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을 검증하고자 환경적 요인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과, 부부갈등 그리고 유전적 요인으로 행동억제 기질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회불안(대인불안, 수행불안)과 가족 사회적 환경(수치심, 타인시선, 비사교성), 부부갈등(빈도, 강도, 해결,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 자기비난, 삼각관계), 행동억제 기질(사회적 회피, 수줍음, 신체화, 단순공포, 분리불안)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각 변인이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문제 1. 자녀가 지각한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은 서로 얼마나 상관이 있으며, 사회불안을 얼마나 설명해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1) 자녀가 지각한 가족 사회적 환경이 부정적이면 사회불안이 높을 것이다.

1-1. 타인을 많이 의식하게 하고, 수치심을 주며, 가족 사회성이 부정적이면 대인불안이 높을 것이다.

1-2. 타인을 많이 의식하게 하고, 수치심을 주며, 가족 사회성이 부정적이면 수행불안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부정적이면 사회불안이 높을 것이다.

2-1. 지각된 위협이 높고, 대처효율성이 떨어지며, 자기비난이 심하고, 부모와 삼각관계를 이루면 대인불안이 높을 것이다.

2-2. 지각된 위협이 높고, 대처효율성이 떨어지며, 자기비난이 심하고, 부모와 삼각관계를 이루면 수행불안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자녀의 행동억제 기질이 높으면 사회불안이 높을 것이다.

3-1. 사회적 회피가 심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며, 신체화가 많이 나타나고, 단순공포와 분리불안이 높으면 대인불안이 높을 것이다.

3-2. 사회적 회피가 심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며, 신체화가 많이 나타나고, 단순공포와 분리불안이 높으면 수행불안이 높을 것이다.

연구 문제 2. 성별, 중·고등학교에 따른 사회불안,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의 차이를 검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4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500부를 배부하였으며, 성실하게 대답하지 않은 119부를 제외하여 381부 만을 사용하였다. 중학생 153(남자;78, 여자;75)명과 고등학생 228(남자;79, 여자;149)명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 도구

1) 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AS-A)

대인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aGreca (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SAS-A)를 오경자 · 양윤란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긴장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등의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불안감에 대한 문항 1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여 18점-9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오경자 · 양윤란의 연구 자료의 요인분석 결과 SAS-A는 두려움-부정적 평가(문항 1, 5, 7, 9, 10, 12, 15, 16), 두려움-새로운 평가(4, 6, 13, 14), 두려움-일반적 상황(17, 18)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소척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Cronbach's α 는 각각 .88, .73, .69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91, .79, .79였다.

2) 아동 청소년용 수행불안척도

수행 상황에서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혜신과 오경자(2002)의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를 포함한 수행불안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너무 긴장해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큰 소리로 책을 읽어야 할 때면 긴장한다.” 등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수행상황을 기술하는 9문항에 대하여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며 점수범위는 9점-4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불안이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1이었다.

3) 가족 환경 질문지(FEQ; Family Environment Questionnaire)

사회불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 사회적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Caster, Inderbitzen와 Hope(1999)가 개발한 가족환경 질문지를 오경자 · 양윤란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FEQ는 성인기에 아동기 가족 환경을 회고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Parent Attitudes Toward Child-Rearing Scale(PATCS: 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의 문항들을 수정하여 청소년들이 현재 시점에서 부모에 대한 지각을 보고하도록 된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FEQ는 ①타인 의견(others' opinion; 부모가 타인의 의견에 신경 쓰는 정도) 5문항, ②수치심(Shame; 부모가 자신의 수줍음이나 낮은 수행에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정도) 5문항, ③가족 사회성(family sociability; 부모의 사회성 정도) 4문항, ④고립(isolation; 부모가 자신을 사회적 상황에서 고립시킨 정도) 5문항 총 19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한 문항을 부모

각각에 대하여 질문한다. 오경자 · 양윤란 연구에서 수집된 FEQ 자료의 요인분석 결과 타인 의견(2, 3, 5, 19), 수치심(문항 7, 11, 17), 가족 사회성(4, 10, 12, 15, 16, 18) 만을 분석에 포함시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원척도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따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전 연구에서와 같이 어머니 점수와 아버지 점수간의 상관성이 높아($r=.82, p <.001$) 각 문항별 아버지 점수와 어머니 점수를 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Caster 등(199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61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각 척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각각 .55, .52, .62, 이었다.

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Grych 등(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1992)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이다. CPIC 척도는 부부갈등의 ① 빈도(1, 9, 13, 16, 24, 31) ② 강도(4, 11, 19, 27, 32, 34, 39), ③ 해결 정도(2, 10, 17, 25, 35, 42), ④ 내용(3, 18, 26, 33)과 갈등에 대한 아동의 평가에 해당되는 ⑤ 지각된 위협(6, 14, 21, 29, 36, 41), ⑥ 대처 효율성(5, 12, 20, 28, 40, 44), ⑦ 자기 비난(8, 15, 23, 37, 43), ⑧ 삼각관계(7, 22, 30, 38) ⑨ 안정성의 9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안정성 차원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하위 차원별 상관성이 있다는 권영옥(1997)의 선행연구에 의해 안정성 차원을 제외한 8개의 하위영역만을 사용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는 Cronbach's α 는 각각 .76, .82, .78, .77, .80, .69, .66, .57이었다.

5)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척도 (RSRI; Retrospective Self-Report

of Inhibition)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Rezenick, Hegeman, Hegeman, Woods와 Jacobs(1992)의 자기 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척도를 오경자·양윤란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이다. RSRI는 총 30개 문항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총 점수는 30점-150점의 범위를 가진다. 오경자·양윤란 연구 자료의 요인 분석 결과, 사회적 회피(문항 20, 21, 22, 23, 25, 28, 30), 수줍음(15,17, 18, 19, 24, 29), 신체화(1, 2, 3), 단순공포(5, 8, 9), 분리불안(19, 11, 12)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있었다. 각 소척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각각 .75, .77, .64, .61, .7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a는 각각 .79, .78, .62, .61, .67이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6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업시간에 작성하여 그 시간에 회수하는 방식을 실시하였다. 교사 및 부모가 설문 내용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작성할 것을 부탁하고 실시하였다. 응답 시간은 대략 20-30분이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각 척도별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용 사회불안(SAS-A;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아동 청소년용 수행불안척도, 가족 환경 질문지(Family Environment Questionnaire; FEQ),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척도(RSRI; Retrospective Self-Report of Inhibition) 각각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표집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다.
- 3) 각 척도별, 하위요인별 성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다.
- 4) 각 척도별,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검증한다.
- 5) 각 척도별, 하위요인별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분석 결과, 전체 381개의 표본 중에서 남성이 41.2%(157명)이었고, 여성이 58.8%(224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15.12세(표준편차;1.164)이며, 16살이 39.4%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40.2%(153명)이고 고등학교 59.8%(228명)이었다. 가족 형태는 부모, 형제와 함께 사는 학생이 80.6%(30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형태는 18.1%(69명)만을 차지했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46.2%(176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막내가 36%(137명)를 나타냈다. 부모 연령은 41- 45세가 각각 45.9%(175명), 58.8%(224명)로 가장 높았고, 부모 학력은 고졸이 60.4%(230명), 74.3%(28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입정도는 100-200만원이 37%(14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을 살펴볼 때 부모의 학력과 수입이 중하위권 집단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집단(n=381)의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n=381)

| 변 인 | 빈 도 | % |
|-----|-----|----------|
| 성 별 | 남자 | 157 41.2 |
| | 여자 | 224 58.8 |

| | | | | |
|-------|-----------------|-------|---------|-----------|
| 학 교 | 중학교 | | 153 | 40.2 |
| | 고등학교 | | 228 | 59.8 |
| 가족 형태 | 부모, 형제 | | 307 | 80.6 |
| | 부모, 형제, 조부모 | | 69 | 18.1 |
| | 부모, 형제, 조부모, 친척 | | 5 | 1.3 |
| 연 령 | 13세 | | 67 | 17.6 |
| | 14세 | | 14 | 3.7 |
| | 15세 | | 128 | 33.6 |
| | 16세 | | 150 | 39.4 |
| | 17세 | | 22 | 5.8 |
| 출생 순위 | 독자녀 | | 25 | 6.6 |
| | 첫째 | | 176 | 46.1 |
| | 중간 | | 43 | 11.3 |
| | 막내 | | 137 | 36.0 |
| 부모 연령 | 35-40세 | 부 / 모 | 22/90 | 5.8/23.6 |
| | 41-45세 | | 175/224 | 45.9/58.8 |
| | 46-50세 | | 143/62 | 37.5/16.3 |
| | 51세 이상 | | 41/5 | 10.8/1.3 |

| | | | | |
|-------|-----------|-------|---------|-----------|
| 부모 학력 | 초졸 | 부 / 모 | 6/11 | 1.6/2.9 |
| | 중졸 | | 28/31 | 7.3/8.1 |
| | 고졸 | | 230/283 | 60.4/74.3 |
| | 대졸 | | 97/52 | 25.5/13.6 |
| | 대졸이상 | | 20/4 | 5.2/1.0 |
| 수 입 | 100만원 미만 | | 20 | 5.2 |
| | 100-200만원 | | 141 | 37.0 |
| | 200-300만원 | | 132 | 34.6 |
| | 300만원 초과 | | 88 | 23.1 |
| 전 체 | | 381 | 100 | |

2. 사회불안,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의 차이검증

사회불안, 가족 양육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의 남·여의 차이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사회불안,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의 남·여 비교

| 변 인 | 평균 (표준편차) | | t |
|-------|--------------|--------------|------|
| | 남(n=157) | 여(n=224) | |
| 사회 불안 | 53.24(17.96) | 50.24(18.02) | 1.69 |

| | | | |
|-----------|--------------|--------------|---------|
| 대인 불안 | 40.79(14.79) | 39.20(14.31) | 1.07 |
| 부정적 평가 | 18.05(7.65) | 18.39(7.58) | -.42 |
| 일반적 상황 | 3.95(2.17) | 3.41(1.85) | 2.55* |
| 새로운 상황 | 11.21(3.84) | 10.32(4.13) | 2.11* |
| 수행 불안 | 20.01(8.28) | 7.93(7.90) | 2.48* |
| 가족 사회적 환경 | 66.38(11.37) | 62.00(10.48) | 3.87*** |
| 수치심 | 11.68(4.72) | 9.50(3.92) | 4.92*** |
| 타인시선 | 25.80(6.32) | 24.02(6.65) | 2.63** |
| 비사교성 | 28.89(7.69) | 28.48(7.14) | .52 |
| 부부 갈등 | 74.95(12.93) | 74.33(13.86) | .44 |
| 빈도 | 10.34(2.98) | 10.65(2.85) | -1.06 |
| 강도 | 12.17(3.55) | 12.61(3.56) | -1.18 |
| 해결 | 9.47(2.94) | 9.75(2.61) | -.97 |
| 내용 | 5.79(1.83) | 5.16(1.57) | 3.62*** |
| 위협 | 10.70(3.06) | 10.65(3.44) | .14 |
| 대처효율 | 11.72(2.66) | 11.74(2.86) | -.05 |
| 자기비난 | 8.35(2.09) | 7.65(2.07) | 3.20** |
| 삼각관계 | 6.38(1.87) | 6.10(1.84) | 1.45 |
| 행동억제 기질 | 51.61(11.24) | 53.39(12.41) | -1.42 |
| 사회적 회피 | 21.26(6.00) | 21.63(6.06) | -.58 |
| 수줍음 | 14.96(5.38) | 15.07(5.83) | -.19 |
| 신체화 | 4.68(2.10) | 5.26(2.50) | -2.38* |
| 단순공포 | 5.38(2.49) | 5.81(3.01) | -1.48 |
| 분리불안 | 5.32(2.47) | 5.60(2.70) | -1.02 |

* $p < .05$, ** $p < .01$, *** $p < .001$

각 주요 변인의 남·여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회불안의 하위요인 중 수행불안($t=2.48, p < .05$)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 불안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요인 일반적 상황($t=2.55, p < .05$)과 새로운 상황($t=2.11, p < .05$)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사회적 환경($t=3.87, p < .001$)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요인에서는 수치심($t=4.92, p < .001$)과 타인시선($t=2.63, p < .01$)만이 남·여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부갈등은 남·여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요인 내용($t=3.62, p < .001$), 자기비난($t=3.20, p < .01$)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행동억제 기질은 신체화($t=-2.38, p < .05$)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단지 부부갈등의 하위요인 강도($t=-2.17, p < .05$)만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1)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 사회불안과의 상관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 사회불안과의 상관계수

| | 가족 사회적 환경 | 부부 갈등 | 행동 억제 기질 | 사회 불안 |
|-----------|--------------|--------|-------------|-------|
| 가족 사회적 환경 | 1 | | | |
| 부부 갈등 | .299** | 1 | | |
| 행동 억제 | .231** | .301** | 1 | |
| 사회 불안 | .278** | .360** | .669** | 1 |

** p<.01

분석결과 변인들 간에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족 사회적 환경은 부부갈등($r=.299, p<.01$), 행동억제 기질($r=.231, p<.01$), 사회불안($r=.278, p<.01$)과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부부갈등은 행동억제 기질($r=.301, p<.01$), 사회불안($r=.360, p<.01$)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행동억제 기질은 사회불안과 가장 높은 상관($r=.669, p<.01$)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가설 1, 2, 3을 증명해 주었다.

2) 하위요인별 사회불안과 각 변인간의 상관

사회불안(대인불안, 수행불안)과 가족 사회적 환경(수치심, 타인의견, 비사교성), 부부갈등(빈도, 강도, 해결, 내용, 위협, 대처효율, 자기비난, 삼각관계), 행동억제 기질(사회적 회피, 수줍음, 신체화, 단순공포, 분리불안)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대인불안, 수행불안과 각 변인 하위요인간의 상관계수

| 변 인 | | 사회 불안 | |
|-------------------|--------|--------|--------|
| | | 대인불안 | 수행불안 |
| 가족 사회적 환경 | 수치심 | .203** | .116* |
| | 타인시선 | .140** | .050 |
| | 비사교성 | .208** | .176** |
| 전체 | | .303** | .193* |
| 부 부 갈 등 | 빈도 | .267** | .137** |
| | 강도 | .216** | .121* |
| | 해결 | .223** | .129* |
| | 내용 | .158** | .129* |
| | 위협 | .336** | .235** |
| | 대처효율 | .323** | .214** |
| | 자기비난 | .048 | .031 |
| | 삼각관계 | .297** | .281** |
| 전체 | | .377** | .249** |
| 행 동 억 제 기 질 | 사회적 회피 | .284** | .344** |
| | 수줍음 | .614** | .674** |
| | 신체화 | .135** | .079 |
| | 단순공포 | .286** | .195** |
| | 분리불안 | .415** | .335** |
| 전체 | | .618** | .627** |

p<.05, ** p<.01

분석결과 대인불안은 수치심($r=.203, p<.01$), 타인시선($r=.140, p<.01$), 비사교성($r=.208, p<.01$), 전체 가족 사회적 환경($r=.303,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부갈등의 빈도($r=.267, p<.01$), 강도($r=.216, p<.01$), 해결($r=.223, p<.01$), 내용($r=.158, p<.01$), 위협($r=.336, p<.01$), 대처효율($r=.323, p<.01$), 삼각관계($r=.297, p<.01$), 전체 부부갈등($r=.377,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행동억제 기질의 사회적 회피($r=.284, p<.01$), 수줍음($r=.614, p<.01$), 신체화($r=.135, p<.01$), 단순공포($r=.286, p<.01$), 분리불안($r=.415, p<.01$), 전체 행동억제 기질($r=.618, p<.01$)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자기비난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수행불안은 가족 사회적 환경의 수치심($r=.116, p<.05$), 비사교성($r=.176, p<.01$), 전체 가족 사회적 환경($r=.193, p<.01$)과 정적상관을 나타냈었으나, 타인시선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부부갈등의 빈도($r=.137, p<.01$), 강도($r=.121, p<.05$), 해결($r=.129, p<.05$), 내용($r=.129, p<.05$), 위협($r=.235, p<.01$), 대처효율($r=.214, p<.01$), 삼각관계($r=.281, p<.01$), 전체 부부갈등($r=.249,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비난은 수행불안에서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행동억제 기질의 사회적 회피($r=.344, p<.01$), 수줍음($r=.674, p<.01$), 단순공포($r=.195, p<.01$), 분리불안($r=.335, p<.01$), 전체 행동억제 기질($r=.627, p<.01$)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신체화만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 2, 3을 부분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4.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1)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불안을 종속변인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중다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 R ² | R ² 변화량 | F | Beta | t |
|-----------|----------------|--------------------|---------|------|-----------|
| 행동억제 기질 | .448 | .448 | 307.389 | .669 | 17.533*** |
| 행동억제 기질 | .475 | .028 | 171.290 | .617 | 15.789*** |
| 부부갈등 | | | | .174 | 4.459*** |
| 행동억제 기질 | | | | .602 | 15.326*** |
| 부부갈등 | .483 | .008 | 117.587 | .150 | 3.752*** |
| 가족 사회적 환경 | | | | .095 | 2.412* |

* p<.05, ** p<.01, *** p<.001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결과 행동억제가 44.8%로 가장 많이 사회불안을 설명해 주었으며, 다음으로 부부갈등 2.8%, 가족 사회적 환경 0.8% 사회불안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가설 1, 2, 3을 증명해 주었다.

(1)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이 대인불안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인불안을 종속변인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중다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 R ² | R ² 변화량 | F | Beta | t |
|-----------|----------------|--------------------|---------|------|-----------|
| 행동억제 기질 | .382 | .382 | 234.360 | .618 | 15.309*** |
| 행동억제 기질 | .422 | .040 | 138.180 | .555 | 13.535*** |
| 부부갈등 | | | | .210 | 5.132*** |
| 행동억제 기질 | .436 | .014 | 97.321 | .535 | 13.046*** |
| 부부갈등 | | | | .179 | 4.269*** |
| 가족 사회적 환경 | | | | .126 | 3.072** |

** p<.01, *** p<.001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결과 행동억제 기질이 38.2%로 가장 많이 대인불안을 설명해 주었으며, 다음으로 부부갈등 4.0%, 가족 사회적 환경 1.4% 대인불안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가설 1, 2, 3을 증명해 주었다.

① 두려움-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이 두려움-부정평가를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두려움-부정평가를 종속변인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중다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표 6-1>에 제시하였다.

<표 6-1> 두려움-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 R ² | R ² 변화량 | F | Beta | t |
|-----------|----------------|--------------------|---------|------|-----------|
| 행동억제 기질 | .235 | .235 | 116.346 | .485 | 10.786*** |
| 행동억제 기질 | .308 | .073 | 83.966 | .400 | 8.903*** |
| 부부갈등 | | | | .283 | 6.301*** |
| 행동억제 기질 | | | | .385 | 8.513*** |
| 부부갈등 | .315 | .008 | 57.915 | .259 | 5.618*** |
| 가족 사회적 환경 | | | | .094 | 2.082* |

* p<.05, ** p<.01, *** p<.001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결과 행동억제 기질이 23.5%로 가장 많이 두려움-부정평가를 설명해 주었으며, 다음으로 부부갈등 7.3%, 가족 사회적 환경 0.8% 두려움-부정평가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가설 1, 2, 3을 증명해 주었다.

② 두려움-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이 두려움-새 평가를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두려움-새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중다 회귀 분석 (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표 6-2>에 제시하였다.

<표 6-2> 두려움-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 R ² | R ² 변화량 | F | Beta | t |
|--|----------------|--------------------|---|------|---|
|--|----------------|--------------------|---|------|---|

| | | | | | |
|-----------|------|------|---------|------|-----------|
| 행동억제 기질 | .330 | .330 | 186.560 | .574 | 13.659*** |
| 행동억제 기질 | .338 | .008 | 96.643 | .553 | 12.851*** |
| 가족 사회적 환경 | | | | .095 | 2.199* |

* p<.05, *** p<.001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결과 행동억제 기질이 33.0%로 가장 많이 두려움-새 평가를 설명해 주었으며, 가족 사회적 환경 0.8% 두려움-새 평가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가설 1, 3을 증명해 주었다.

③ 두려움-일반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이 두려움-일반상황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두려움-일반상황을 종속변인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중다 회귀 분석 (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표 6-3>에 제시하였다.

<표6-3> 두려움-일반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 R ² | R ² 변화량 | F | Beta | t |
|-----------|----------------|--------------------|---------|------|-----------|
| 행동억제 기질 | .239 | .239 | 119.228 | .489 | 10.919*** |
| 행동억제 기질 | .273 | .034 | 70.913 | .446 | 9.890*** |
| 가족 사회적 환경 | | | | .188 | 4.175*** |

*** p<.001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결과 행동억제가 23.9%로 가장 많이 두려움-일반상

황을 설명해 주었으며, 가족 사회적 환경 3.4% 두려움-일반상황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가설 1, 3을 증명해 주었다.

(2)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가 수행불안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불안을 종속변인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중다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 R ² | R ² 변화량 | F | Beta | t |
|---------|----------------|--------------------|---------|------|-----------|
| 행동억제 기질 | .393 | .393 | 245.218 | .627 | 15.659*** |

*** p<.001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결과 행동억제 기질만 39.3% 수행불안을 설명하였다. 나머지 부부갈등과 가족 사회적 환경은 수행불안을 설명해 주지 못했다. 따라서 가설 3을 설명해 주었다.

5. 각 변인의 하위요인들이 사회불안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1) 사회불안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각 변인의 하위요인들이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불안을 종속변인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 하위요인(타인의견, 수치심, 비사

교성), 부부갈등 하위요인(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 자기비난, 삼각관계), 행동억제 기질 하위요인(사회적 회피, 수줍음, 신체화, 단순공포, 분리불안)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중다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사회불안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 R ² | R ² 변화량 | F | Beta | t |
|--------|----------------|--------------------|---------|------|-----------|
| 수줍음 | .481 | .481 | 351.404 | .694 | 18.746*** |
| 수줍음 | .504 | .023 | 191.930 | .679 | 18.639*** |
| 비사교성 | | | | .152 | 4.162*** |
| 수줍음 | | | | .642 | 17.464*** |
| 비사교성 | .525 | .022 | 139.094 | .152 | 4.271*** |
| 삼각관계 | | | | .151 | 4.134*** |
| 수줍음 | | | | .639 | 17.615*** |
| 비사교성 | .539 | .013 | 109.794 | .180 | 4.978*** |
| 삼각관계 | | | | .139 | 3.844*** |
| 타인시선 | | | | .120 | 3.304** |
| 수줍음 | | | | .608 | 16.200*** |
| 비사교성 | | | | .144 | 3.778*** |
| 삼각관계 | .549 | .010 | 91.276 | .141 | 3.915*** |
| 타인시선 | | | | .135 | 3.725*** |
| 사회적 회피 | | | | .115 | 2.911*** |

| | | | | | |
|--------|------|------|--------|------|-----------------------|
| 수줍음 | | | | .570 | 14.090 ^{***} |
| 비사교성 | | | | .141 | 3.741 ^{***} |
| 삼각관계 | .556 | .007 | 77.965 | .122 | 3.353 ^{**} |
| 타인시선 | | | | .118 | 3.203 ^{**} |
| 사회적 회피 | | | | .121 | 3.071 ^{**} |
| 분리불안 | | | | .096 | 2.387 [*] |
| 수줍음 | | | | .557 | 13.658 |
| 비사교성 | | | | .132 | 3.484 ^{***} |
| 삼각관계 | | | | .112 | 3.046 ^{**} |
| 타인시선 | .561 | .005 | 68.118 | .115 | 3.134 ^{**} |
| 사회적 회피 | | | | .106 | 2.670 ^{**} |
| 분리불안 | | | | .096 | 2.416 [*] |
| 대처효율 | | | | .079 | 2.138 [*] |

* $p < .05$, ** $p < .01$, *** $p < .001$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결과 수줍음 48.1%로 가장 많이 사회불안을 설명해 주었으며, 다음으로 비사교성 2.3%, 삼각관계 2.2%, 타인시선 1.3%, 사회적 회피 1.0%, 분리불안 0.7%, 대처효율 0.5% 사회불안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어린시절에 수줍음을 많이 탔고, 가족 사회적 환경이 비사교적이며, 부부갈등 시 삼각관계를 이루며, 가족 사회적 환경이 타인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어린시절 사회적 회피를 많이 했으며, 분리불안이 있고, 부부갈등 시 대처효율성이 낮으면 사회불안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가설 1, 2, 3을 부분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2) 대인불안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들이 대인불안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인불안을 종속변인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 하위요인(타인의견, 수치심, 미사교성), 부부갈등 하위요인(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 자기비난, 삼각관계), 행동억제 기질 하위요인(사회적 회피, 수줍음, 신체화, 단순공포, 분리불안)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중다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대인불안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

| | R ² | R ² 변화량 | F | Beta | t |
|------|----------------|--------------------|---------|------|-----------|
| 수줍음 | .377 | .377 | 229.269 | .614 | 15.142*** |
| 수줍음 | .405 | .029 | 128.892 | .534 | 12.180*** |
| 분리불안 | | | | .187 | 4.260*** |
| 수줍음 | .432 | .027 | 95.771 | .489 | 11.069*** |
| 분리불안 | | | | .186 | 4.326*** |
| 대처효율 | | | | .171 | 4.238*** |
| 수줍음 | .449 | .016 | 76.583 | .480 | 10.982*** |
| 분리불안 | | | | .192 | 4.536*** |
| 대처효율 | | | | .146 | 3.620*** |
| 미사교성 | | | | .131 | 3.351** |

| | | | | | |
|------|------|------|--------|------|-----------|
| 수줍음 | | | | .488 | 11.303*** |
| 분리불안 | | | | .160 | 3.737*** |
| 대처효율 | .465 | .016 | 65.122 | .143 | 3.595*** |
| 비사교성 | | | | .161 | 4.065*** |
| 타인시선 | | | | .133 | 3.328** |
| 수줍음 | | | | .477 | 11.070*** |
| 분리불안 | | | | .138 | 3.160** |
| 대처효율 | | | | .130 | 3.254** |
| 비사교성 | .473 | .009 | 56.018 | .162 | 4.113*** |
| 타인시선 | | | | .128 | 3.229** |
| 삼각관계 | | | | .099 | 2.466* |

* p<.05, ** p<.01, *** p<.001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결과 수줍음 37.7%로 대인불안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었으며, 분리불안 2.9%, 대처효율 2.7%, 비사교성 1.6%, 타인시선 1.6%, 삼각관계 0.9% 순으로 대인불안을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어린시절 수줍음을 많이 타고, 분리불안이 높으며, 부부갈등의 대처효율이 낮고, 가족 사회적 환경이 비사교적이며, 타인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부부갈등 시 삼각관계를 이루면 대인불안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가설 1, 2, 3을 부분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① 두려움-부정평가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들이 두려움-부정평가를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두려움-부정평가를 종속변인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 하위요인(타인의 견, 수치심, 비사교성), 부부갈등 하위요인(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 자기비난, 삼각관계), 행동억제 기질 하위요인(사회적 회피, 수줍음, 신체화, 단순공포, 분리불안)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중다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표 9-1>에 제시하였다.

<표 9-1> 두려움-부정평가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

| | R ² | R ² 변화량 | F | Beta | t |
|--------|----------------|--------------------|---------|------|-----------|
| 수줍음 | .241 | .241 | 120.350 | .491 | 10.970*** |
| 수줍음 | .296 | .055 | 79.413 | .422 | 9.369*** |
| 지각된 위협 | | | | .244 | 5.426*** |
| 수줍음 | .315 | .019 | 57.864 | .415 | 9.319*** |
| 지각된 위협 | | | | .201 | 4.335*** |
| 해결 | | | | .147 | 3.270** |
| 수줍음 | .332 | .016 | 46.630 | .360 | 7.583*** |
| 지각된 위협 | | | | .171 | 3.645*** |
| 해결 | | | | .155 | 3.485** |
| 분리불안 | | | | .144 | 3.028** |
| 수줍음 | .341 | .009 | 38.810 | .341 | 7.106*** |
| 지각된 위협 | | | | .137 | 2.799** |
| 해결 | | | | .127 | 2.769** |
| 분리불안 | | | | .151 | 3.177** |
| 대처효율 | | | | .112 | 2.316* |

* p<.05, ** p<.01, *** p<.001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결과 수줍음 24.1%로 두려움-부정평가를 가장 많이 설명해 주었으며, 지각된 위협 5.5%, 해결 1.9%, 분리불안 1.6%, 대처효율 0.9% 순으로 두려움-부정평가를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가설 2, 3을 부분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② 두려움-새 평가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들이 두려움-새 평가를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두려움-새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 하위요인(타인의 견, 수치심, 비사교성), 부부갈등 하위요인(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 자기비난, 삼각관계), 행동억제 기질 하위요인(사회적 회피, 수줍음, 신체화, 단순공포, 분리불안)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중다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표 9-2>에 제시하였다.

<표 9-2> 두려움-새 평가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

| | R ² | R ² 변화량 | F | Beta | t |
|--------|----------------|--------------------|---------|------|-----------|
| 수줍음 | .350 | .350 | 203.637 | .591 | 14.270*** |
| 수줍음 | .375 | .026 | 113.431 | .541 | 12.696*** |
| 사회적 회피 | | | | .168 | 3.932*** |
| 수줍음 | .391 | .016 | 80.693 | .529 | 12.514*** |
| 사회적 회피 | | | | .197 | 4.568*** |
| 타인시선 | | | | .130 | 3.144** |

| | | | | | |
|--------|------|------|--------|------|-----------|
| 수줍음 | | | | .498 | 11.354*** |
| 사회적 회피 | .401 | .010 | 62.824 | .206 | 4.789*** |
| 타인시선 | | | | .121 | 2.940** |
| 단순공포 | | | | .103 | 2.450* |
| 수줍음 | | | | .502 | 11.469*** |
| 사회적 회피 | | | | .175 | 3.835*** |
| 타인시선 | .407 | .006 | 51.445 | .136 | 3.262** |
| 단순공포 | | | | .091 | 2.165* |
| 비사교성 | | | | .087 | 1.989* |

* $p < .05$, ** $p < .01$, *** $p < .001$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결과 수줍음 35.0%로 두려움-새 평가를 가장 많이 설명해 주었으며, 사회적 회피 2.6%, 타인시선 1.6%, 단순공포 1.0%, 비사교성 0.6% 순으로 두려움-새 평가를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가설 1, 3을 부분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③ 두려움-일반상황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들이 두려움-일반상황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두려움-일반상황을 종속변인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 하위요인(타인의 견, 수치심, 비사교성), 부부갈등 하위요인(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 자기비난, 삼각관계), 행동억제 기질 하위요인(사회적 회피, 수줍음, 신체화, 단순공포, 분리불안)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중다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표 9-3>에 제시하였다.

<표 9-3> 두려움-일반상황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

| | R ² | R ² 변화량 | F | Beta | t |
|--------|----------------|--------------------|---------|------|-----------|
| 수줍음 | .212 | .212 | 101.877 | .460 | 10.093*** |
| 수줍음 | .243 | .031 | 60.785 | .440 | 9.773*** |
| 수치심 | | | | .179 | 3.966*** |
| 수줍음 | .265 | .021 | 45.198 | .373 | 7.637*** |
| 수치심 | | | | .154 | 3.405** |
| 분리불안 | | | | .163 | 3.295** |
| 수줍음 | .282 | .018 | 36.969 | .324 | 6.373*** |
| 수치심 | | | | .158 | 3.541*** |
| 분리불안 | | | | .178 | 3.609*** |
| 사회적 회피 | | | | .140 | 3.049** |
| 수줍음 | .290 | .008 | 30.646 | .319 | 6.278*** |
| 수치심 | | | | .134 | 2.919** |
| 분리불안 | | | | .168 | 3.413** |
| 사회적 회피 | | | | .149 | 3.244** |
| 내용 | | | | .093 | 2.031* |

* p<.05, ** p<.01, *** p<.001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결과 수줍음 21.2%로 두려움-일반상황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었으며, 수치심 3.1%, 분리불안 2.1%, 사회적 회피 1.8%, 내용 0.8% 순으로 두려움-일반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가설 1, 2, 3을 부분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3) 수행불안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각 변인의 하위요인이 수행불안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불안을 종속변인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 하위요인(타인의견, 수치심, 비사교성), 부부갈등 하위요인(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 자기비난, 삼각관계), 행동억제 기질 하위요인(사회적 회피, 수줍음, 신체화, 단순공포, 분리불안)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중다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수행불안에 대한 각 변인 하위요인 중다회귀분석

| | R ² | R ² 변화량 | F | Beta | t |
|--------|----------------|--------------------|---------|------|-----------|
| 수줍음 | .454 | .454 | 315.295 | .674 | 17.757*** |
| 수줍음 | .476 | .022 | 172.000 | .627 | 16.075*** |
| 사회적 회피 | | | | .157 | 4.015*** |
| 수줍음 | | | | .595 | 15.010*** |
| 사회적 회피 | .492 | .016 | 121.700 | .160 | 4.157*** |
| 삼각관계 | | | | .128 | 3.395** |

** p<.01, *** p<.001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결과 수줍음 45.4%로 수행불안을 가장 설명해 주었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회피 2.2%, 삼각관계 1.6%로 수행불안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어린시절 수줍음을 많이 타고, 사회적 회피가 높으며, 부부갈등시 삼각관계가 형성되면 수행불안을 높이는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가설 2, 3을 증명해 주었다.

IV. 논의 및 제언

1. 결과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불안 수준을 평가하고, 주요 위험요인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을 조사하였다. 사회불안은 대인 불안과 수행불안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중·고등학교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불안(대인불안; 두려움-부정적 평가, 새 상황, 일반상황/수행불안), 가족 사회적 환경(수치심, 타인시선, 비사교성), 부부갈등(빈도, 강도, 해결, 내용, 위협, 대처 효율, 자기비난, 삼각관계), 행동억제 기질(사회적 회피, 수줍음, 신체화, 단순공포, 분리불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행불안이 높았고, 남학생의 가족 사회적 환경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부부갈등의 내용과 자기비난이 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린시절에 신체화로 나타나는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본 연구에서 대인불안과 수행불안 모두 남성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기존 연구(오경자·양윤란, 2003)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특히 대인불안의 부정적 평가, 행동억제 기질의 수줍음, 신체화, 분리불안, 단순공포에서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높은 점수였으나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행불안은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하여 정의내리기 힘들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남성들이 사회적 수행 장면에서 남을 많이 의식하고 오히려 소심해져 가는 현상일 수도 있고, 남자들이 가정에서 과보호를 받아서 남을 의식하고 독립적인 행동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일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높아지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른 점은 피해자가 다른 현상일 수도 있다. 다만 대인불안의 부정적 평가와 어린시절의 행동억제 기질(수줍음, 신체화, 분리불안, 단순공포)은 여학생이 높은 경향을 띤다고 볼 수 있겠다. 수행불안은 남자가 높고 행동억제 기질은 여자가 높은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에 대한 양육 방식이 억제적인 상황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남아들의 수행불안이 높은 점은 남아들에 대한 사회 기술훈련이 필요한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중·고등학생간의 차이 검증결과는 부부갈등 하위요인 중 강도에서만 고등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부부갈등에 대하여 고등학생이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혹은 인지적 능력이 중학생에 비해 더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겠다. 기존 연구(오경자·양윤란, 2003)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행동억제 기질(수줍음)이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가족 사회적 환경(타인시선)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기존연구와 반대의 결과가 나와 수줍음과 타인시선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감에 따라 변화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부부 갈등을 많이 겪으면, 자녀들이 민감해져서 집중력도 떨어져 학업의 성적도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 사회불안과의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 간에 상관성이 있으며 행동억제 기질 44.8%, 부부갈등 2.8%, 가족 사회적 환경 0.8%로 사회불안을 설명하고 있었다. 어린시절(초등학교 저학년 때 까지)행동억제 기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청소년이 사회불안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부부갈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 또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며, 마지막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의 부정적 평가는 사회불안에 취약하지만 다른 변인들보다 적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사회불안을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인불안에서도 행동억제 기질 38.2%, 부부갈등 4.0%, 가족 사회적 환경 1.4%(가설 1, 2, 3 증명)순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나, 수행불안에서는 행동억제 기질 39.3%(가설 3 증명)만이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즉, 어린시절 행동억제 기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청소년은 대인불안과 수행불안 모두 갖기 쉬우며, 부부갈등과 가족 사회적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은 대인불안에서만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부부갈등과 가족 사회적 환경을 통해 이루어진 부정적 측면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수행 상황에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또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대인불안의 세 가지 하위요인(두려움-부정적 평가, 새 평가, 일반상황)으로 살펴보면 주목할 점이 있다. 두려움-부정적 평가에서 부부갈등이 7.3%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는 반면, 두려움-새 평가와 두려움-일반상황에서는 부부갈등은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설명해 주지는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부갈등은 대인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 중 주로 부정적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부모의 부부갈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은 대인상황에서도 동일한 개념을 갖고, 타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부정적 인지구조가 가정의 부부갈

등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과 일반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부갈등으로 통해 이루어진 학습능력으로 두려움을 잘 극복한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각 변인의 하위요인별로 사회불안(대인불안, 수행불안)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우선, 사회불안은 행동억제 기질의 수줍음 48.1%로 가장 많이 설명해 주었고, 가족 사회적 환경의 비사교성, 부부갈등의 삼각관계, 가족 사회적 환경의 타인시선, 행동억제의 사회적 회피, 분리불안, 대처효율 순서로 설명할 수 있었다. 나머지 가족 사회적 환경(수치심), 부부갈등(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협), 행동억제 기질(신체화, 단순공포)은 상관분석에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회불안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주목할 점은, 부부갈등의 자기비난은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에서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부부갈등 시 청소년 자녀가 자기비난으로 돌리는 것은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어린시절 수줍음을 많이 타고 사회적 회피가 심하고 분리불안이 심했으며, 부부갈등 때문에 부모와 삼각관계를 이루고 대처효율성이 떨어지며, 가족 사회적 환경이 타인을 많이 의식하며 비사교적이면 사회불안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것은 환경적 요인보다는 유전적 요인이 행동억제 기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부갈등과 가족 사회적 환경도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변인임을 간과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사회불안을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인불안은 행동억제 기질의 수줍음이 역시 37%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행동억제 기질의 분리불안, 부부갈등의 대처효율, 가족 사회적 환경의 비사교성, 타인시선, 부부갈등의 삼각관계 순서로 수행불안을 설명해 주었다. 즉, 어린시절 수줍음을 많이 타고 분리불안이 있었으

며, 가족 사회적 환경이 비사교적이고 타인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하며, 부부갈등 시 삼각관계를 이루면 대인불안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수행불안은 역시 행동억제 기질의 수줍음이 37% 가장 많은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회피, 부부갈등의 삼각관계가 설명해 주었다. 앞에서 수행불안은 행동억제 기질만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나,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삼각관계도 설명력을 나타낸 것에 주목할 만하다. 즉, 어린시절 수줍음을 많이 타던 청소년이 사회적 회피가 심하면서, 부부갈등 시 삼각관계를 이루면 청소년의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기존 연구(오경자, 양윤란, 2003)와 비교해 보면 대인불안에서 행동억제 기질의 직접경로는 유의미했고, 가족 사회적 환경은 직접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수행불안은 행동억제 기질이 초등학생만 직접경로가 유의미했으며, 고등학생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사회적 환경이 외국의 연구(Bruch & Heimberg, 1994; Caster, Inderbitzen & Hope, 1999; Velting & Albano, 1999에서 직접경로가 유의미하였던 것과 상반된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것은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정에서 사회성을 키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 수행능력을 키우는 변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동억제 기질의 수줍음과 사회적 회피는 기존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수행불안을 극복한다고 볼 수 있으나, 행동억제 기질의 분리불안은 대인불안을 극복하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또한 부부갈등은 특히 부모와의 삼각관계 상황에 놓였던 경험이 대인상황과 수행상황 모두에서 동일하게 인식을 함으로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대인불안의 3가지 하위요인(두려움-부정적 평가, 새 평가, 일반상황)으로 나눠서 보면, 대인불안과의 차이에 주목할 점이 있다. 두려움-부정적

평가를 살펴보면 수줍음, 지각된 위협, 해결, 분리불안, 대처효율 순으로 설명해 주어, 부부갈등의 지각된 위협 5.5%, 해결 1.9% 추가되었다. 따라서 두려움-부정적 평가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부갈등(지각된 위협과 해결 정도)이 청소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부갈등이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위협을 많이 경험하고 미해결된 부모의 부부갈등을 통해 부정적 인지구조를 형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두려움-새 평가는 수줍음, 사회적 회피, 타인시선, 단순 공포, 비사교성 순으로 설명해 주었다. 두려움-일반평가는 수줍음, 수치심, 분리불안, 사회적 회피, 내용 순서로 설명해 주었다. 또 주목할 점은 가족 사회적 환경이 수치심을 주며, 부부갈등의 내용이 청소년 자신에 관한 것일수록, 청소년은 일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낀다고 볼 수 있겠다. 부부갈등이 자신에 관하여 일어나는 것을 자주 경험할수록 일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타인의 부정적 관점이 자신에게 향해있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불안은 우선, 어린시절 행동억제 기질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수줍음'이 전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어린시절의 분리불안은 대인불안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어린시절 사회적 회피나 단순공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의 수행불안은 어린시절 사회적 회피로 나타날 수 있겠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대인불안이 수행불안에 비해 기질적 취약성의 비중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오경자 · 양윤란, 2003),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 기질이 두 변인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부모의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특히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부부갈등 시 청소년이 지각하는 위협과 해결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부부갈등의 내용도 청소년의 일반상황에 발생하는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으나, 자기비난은 상관 및 설명력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점을 제시해 본다. 또한 부모의 부부갈등 시 청소년 자녀와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이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은 사회불안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나, 부모가 비사교적이며 자녀인 청소년에게 타인을 많이 의식하게 하는 것은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수치심을 주는 가족 사회적 환경이라면 일반적 상황에 두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 주로 가설 3이 부각되었는데, 이것은 유전적 소인(행동억제 기질)이 환경적 소인보다 사회불안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도 있으며, 혹은 환경적 소인(부부갈등과 가족 사회적 환경)이 간접경로를 통하여 사회불안(대인불안,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을 상관 및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평가할 수는 있었으나,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인지에 대하여 아니면 간접 효과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로를 분석하지 못했다. 기존 연구에서 가족 사회적 환경과 아동 청소년의 사회불안과의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고(Bruch & Heimberg, 1994; Caster, Inderbitzen & Hope, 1999;

Velting & Albano, 1999), 국내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얻어(오경자 · 양윤란, 2003) 가족 사회적 환경이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본 연구도 가족 사회적 환경이 행동억제 기질에 비하여 낮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가족 사회적 환경에 대한 외국과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기에, 후속연구에서는 우리문화에 맞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 사회적 환경 및 부부갈등에 대하여 본 연구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경로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으로 가족 사회적 환경과 부부갈등, 유전적 요인으로 행동억제 기질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으로 외상경험의 영향, 학교 환경, 교우관계 등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유전적 특성을 연구하여 사회불안의 원인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불안을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시험불안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자료에만 근거해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측정 오차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가족, 교사 보고식 설문지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좀더 다양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대상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회공포증 진단을 받은 임상적 심리장애로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임상집단과 비교하여 이루어지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관점에서 연구되었으나, 본 연구는 직접적인 사회불안과 관련된 구체적 가족 사회적

환경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가족 사회적 환경과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을 밝혀주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부부갈등이라는 또 다른 환경적 차원에서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의 부부갈등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의 다차원적 측면(빈도, 강도, 해결,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의 문제들을 밝혔으나, 본 연구를 통해 자녀의 직접적인 지각(지각된 위협, 대처효율, 자기비난, 삼각관계) 요인들과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을 시사해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겠다. 그리고 사회공포증이 처음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드물며, 특히 행동억제 기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사회불안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단순한 불편감 혹은 사회적 회피의 개념으로 측정된 반면, 본 연구는 대인불안(두려움-부정적 평가, 새 상황, 일반상황)과 수행불안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변인들을 밝힐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불안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예방 및 치료, 개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김남재 (1997). 대인불안 집단의 자기의식과 인정추구 욕구. 학생생활연구.

P. 3.29-39

김원식, 김교현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BAS/BIS)

척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6(2). P. 19-37.

권영옥, 이정택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

구. 아동학회지, 18(1), 65-80.

문혜신, 오경자(2002).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1(2), p.429-444.

박성은, 박성연 (2000).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양육행동 및 모자녀 애착과 남.

여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P.85-92.

오경자, 양윤란 (2003).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

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2(3), p.557-573.

오경자, 양윤란 (2003).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I: 6개월

추적조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2(3), p.574-597.

이민식, 오경자 (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

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이순형, 권영옥 (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부부갈등해결의 중재 효과. 아동학회지. 20(4)

이정윤(1996). 사회불안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와 노출치료의 효과연구. 미 발표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이정윤, 최정훈(1997).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와 노출치료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 1, 35-56.

이정윤(1999). 사회불안과 우울의 인지특성: 비합리적 신념, 역기능적 태도, 핵심신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p.199-211.

이혜민 (1999). 사회불안과 자의식 및 완벽주의간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혜인 (2003).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경, 김영희 (2003). 어머니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1(8).p 123-137.

정미정, 정현희(2002). 자의식,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의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14(1). p. 1, 39-53.

정옥분,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 (2002).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억제: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4). P.71-88.

현명호, 최문선 (2002).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15호.

Albano, A. M., Chorpita, B., & Barlow, D. (1996). Childhood anxiety disorders. In E. J. Mash & R. A. Barkley (Eds.), *Child Psychopath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p.196-241.

Alessandri, S. M., & Lewis, M.(1993). Parental evaluation and its relation to shame and pride in young children. *Sex roles*. 29, 335-34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ition)*. Washington, DC: Author.

Beidel, D. C., Morris, T.L.(1995). Social phobia. In J. March (Ed.), *Anxiety disorder in children and adolescence*. New York: Guilford Press. p.181-211.

Beidel, D. C., & Randall, J.(1994). Social phobia. In T.H. Ollendick,

N, J. King ,& W. Yule(1994), International handbook of phobic and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Plenum Press. p.111–129.*

Bloom, B. L. (1985). A factor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4, 225–239.*

Bruch M. A. (1989). Familial and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social phobia: issues and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37–47*

Bruch M. A & Heimberg, R. G. (1994).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between generalized and nongeneralized social phobic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8, 155–168*

Bruch M. A & Belkin, D. K (2001). Attribution style in shyness and depression: shared and specific maladaptive patter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247–259*

Bruch M. A., Heimberg, R. G., Berger, P., & Collins, T. M. (1989). Social phobia and perceptions of early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xiety Research, 2, 57–65.*

- Buss, A. H. (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San Francisco: Freeman.
- Carter, M. M., Sbrocco, T., Lewis, E. L., & Friedman, E. K. (2001). Parental bonding and anxiety: Differences between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nd anxie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5*, 555–569.
- Caster, J. B., Inderbitzen, H. M., & Hope, D. (1999). Relationship Between youth and parent perceptions of family environment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3*, 237–251.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p. 69–93.
- Daniels, D., & Plomin, R. (1985).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 shy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9–121.
- Daniels, D. & Plomin, R., (1986). Genetics and shyness. In W. Cheek, J. M. Cheek, & S. R. Briggs, *Shyness: Perspectives on research and treatment*. New York: Plenum. p. 63–90.

- Essau, C., Conradt, J., & Petermann, F. (1999). Frequency and co-morbidity of social phobia and social fears in adolesc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7, 831–843.
- Essau, C. A., Conradt, J., & Petermann, F. (2002). Course and outcome of anxiety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8, 67–81
- Hope, D. A., & Heimberg, R. G.(1988).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phobia.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626–639.
- Jeffrey B. Caster, M. A., Heidi M. Inderbitzen, PH. D., And Debra Hope, PH. D. (1999). Relationship Between Youth and Parent Perceptions of Family Environment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3(3). p. 237–251.
- Jerome Kagan and Nancy Snidman. (1999). Early Childhood Predictor of Adult Anxiety Disorder. *Social of Biological Psychiatry*. 46. p. 1536–1541.
- Jostes, A., Pook, M., & Florin, I. (1999).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 specific psychopathological featu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7, 1285–1295

Heimberg, R. G., Dodge, C. S., Hope, D., Kennedy, C. R., Zollo, L. J., & Becker, P. E. (1990).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of social phobia; Comparison of a credible placebo control.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1–23.*

Kessler, R. C., McGongle, K., Zhao, S., Nelson, C., Hughes, M., Eschleman, S., Wittchen, H. U., & Kendler, K. S. (1994). Lifetime and 12-month prevalence of DSM III-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8–19.*

Last, C., Perrin, S., Hersen, M., & Kazdin, A. (1992). DSM III-R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Socioeconom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LaGreca, A. M. (1998). Manual for the social anxiety scal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iami, FL: Author.

Michele A. Mick, M. A., and Michael J. Telch, PH. D. (1998). Social anxiety and histor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1). p. 1–20.*

Parker, G.(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0–560.

Rapee, R. M. (1995).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the affective response to biological challenge procedures in panic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9, 59–74.

Rapee, R. M.(1995). Descriptive psychopathology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p. 41–66.

Rapee, R. M. (1997). Potential role of child–rearing practices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 47–67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741–456.

Reznick, J. C., Hegeman, I. M., Kaufman, E. R., Woods, S. W., & Jaconbs, M. (1992). Retrospective and concurrent self–report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their relation to adult mental healt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301–321.

Samuel M. Turner and Deborah C. Beidel & Patricia L. Wolff. (1996). Is behavioral inhibition related to the anxiety disor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2). p. 157–172.

Susan M. Bogels, Annemarie van Oosten, Peter Muris, Dianne Smulders (2001) Familial correlates of social anxie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 Therapy*. 39 P. 273–287.

ABSTRACT

The Study of Social Anxiety in relation to Family Environment,
The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and Behavioral inhibition of Adolescents.

You-Na Ho

Dep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amily environment, the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retrospective behavioral Inhibition on social anxiety of adolescents. A total of 381 adolescents(157 males and 224 females) from a middle school(153 subjects) and a high school(228 subjects) were administered with the anxiety scale of interpersonal and performance situations, the retrospective account of behavior

inhibition questionnaire, the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al conflict scales.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Test showed that male adolescents reported higher levels of performance anxiety, family environment score, contents & self-criticism of parental conflict than those of female counterparts.

On the other hand, the females recalled higher levels of behavioral inhibition during their childhood than those of male counterpart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 behavioral inhibition, the family environment, the parental conflict and the social anxiety.

Thir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social anxiety was explained by the behavioral inhibition(44.8%), the parental conflict(2.8%), the family environment(0.8%) variables.

Also, the interpersonal anxiety was explained by the behavioral inhibition(38.2%), the parental conflict(4.0%), and the family environment (1.4%) variables. However, the performance anxiety

was affected by behavioral inhibition (39.3%) variable.

Finally, the further analysis showed that the fear of negative criticism was related to shyness as a result of behavioral inhibi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helpful for counseling for the youth and adolescents.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as recommended.

부 록 목 차

<부록 1>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부록 2> 청소년용 사회불안 및 수행불안 질문지

<부록 3> 가족 환경 질문지

<부록 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질문지

<부록 5>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질문지

<부록 1>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한 사회성향을 알아보는 연구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없고, 좋은 답과 나쁜 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낀 대로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답해주신 질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 혹은 부모님께서도 보실 수 없으니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04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임상 심리 전공
담당 교수: 채 규 만
연구 자: 호 유 나

※ 해당 사항에 대한 적절한 답에 ○해 주시거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 교 : 중학교 () / 고등학교 ()
2. 학 년 : () 학년
3. 성 별 : 남 () / 여 ()
4. 연 령 : 만 () 세
5. 출생 순위: ()남 ()녀 중 ()째
6. 함께 살고 있는 가족 :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형제()그 외()
7. 현재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아버지의 연세는 ()세 / 어머니 연세는 ()세
8. 부모님의 학력은 아버지 ①무학 ②초졸 ③중졸 ④고졸 ⑤대학졸 ⑥대학원 이상
어머니 ①무학 ②초졸 ③중졸 ④고졸 ⑤대학졸 ⑥대학원 이상
9. 부모님께서 별거하신다면 그 이유는? (해당되는 분만 응답바람)
①직장 때문에 ②부부갈등 문제 ③이혼 ④기타이유()
10. 부모님은 직업을 갖고 계신다면 무슨 직종인가? 아버지() / 어머니()
11. 한달 수입은? ①100만원 이하 ②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만원 이상

<부록 2> 청소년 사회불안 및 수행불안 질문지

다음은 평소 내가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어보고 평소 나는 얼마나 이런 느낌을 갖는지 표시해 봅시다.

| | 전 | 약 | 보 | 자 | 항 |
|----|---|---|---|---|---|
| | 혀 | 간 | 통 | 주 | 상 |
| | 아 | 그 | 그 | 그 | 그 |
| | 니 | 럴 | 럴 | 럴 | 럴 |
| | 다 | 다 | 다 | 다 | 다 |
| 1 | 1 | 2 | 3 | 4 | 5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 | | | | | |
|----|--|---|---|---|---|---|
| 18 | 다른 사람에게 월 같이 하자고 부탁하지 못한다. | 1 | 2 | 3 | 4 | 5 |
| 19 |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너무 긴장해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 | 1 | 2 | 3 | 4 | 5 |
| 20 |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큰소리로 책을 읽어야 할 때면 긴장한다. | 1 | 2 | 3 | 4 | 5 |
| 21 | 어떤 집단이나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발표를 할 때 긴장한다. | 1 | 2 | 3 | 4 | 5 |
| 22 | 교단에 나가 반 전체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두렵다. | 1 | 2 | 3 | 4 | 5 |
| 23 | 나는 너무 겁이 나서 수업시간에 질문을 잘 못한다. | 1 | 2 | 3 | 4 | 5 |
| 24 | 내가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겁이 난다. | 1 | 2 | 3 | 4 | 5 |
| 25 |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관심이 나에게 집중될까봐 두렵다. | 1 | 2 | 3 | 4 | 5 |
| 26 | 나는 학교 연극이나 합창, 노래나 무용발표회에 참여할 때면 긴장한다. | 1 | 2 | 3 | 4 | 5 |
| 27 | 몇 분이상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이야기를 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 1 | 2 | 3 | 4 | 5 |

<부록 3> 가족 환경 질문지

다음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기술한 목록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부모님 중 한 분만 계시면 해당되는 곳에만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 | | 아 버 지 | | | | | 어 머 니 | | | | |
|----|--|-------|---|---|---|---|-------|---|---|---|---|
| | | 전 | 약 | 보 | 자 | 항 | 전 | 약 | 보 | 자 | 항 |
| | | 허 | 간 | 통 | 주 | 상 | 허 | 간 | 통 | 주 | 상 |
| | | 아 | 그 | 그 | 그 | 그 | 아 | 그 | 그 | 그 | 그 |
| | | 니 | 럴 | 럴 | 럴 | 럴 | 니 | 럴 | 럴 | 럴 | 럴 |
| |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 1 | 우리 부모님은 손님을 집으로 부르지 않는 편입니다.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2 |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3 | 우리 부모님이 보기에 내가 친구나 선생님을 실망시켰다면 슬퍼하실 것이다.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4 | 우리 가족은 모임을 좋아한다.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5 | 우리 부모님은 (그리고 내 형제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까봐 걱정하신다.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6 | 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우리 부모님은 굳이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말라고 혼자 다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7 |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나에게 창피를 주신다.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8 | 우리 부모님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겁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때 나에게 화를 내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9 |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라고 말씀하신다.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10 | 우리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과 놀러 다니는 것을 어색해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 | | |
|----|--|-----------|-----------|
| | 하신다. | | |
| 11 | 내가 학교에서 공부나 운동을 잘하지 못하면 우리 부모님은 화를 내며 망신을 당하신 것처럼 행동하신다. | 1 2 3 4 5 | 1 2 3 4 5 |
| 12 | 우리 부모님은 가족과 함께 다른 집에 놀러가기를 좋아하신다. | 1 2 3 4 5 | 1 2 3 4 5 |
| 13 | 우리 부모님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 1 2 3 4 5 | 1 2 3 4 5 |
| 14 | 우리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가족이나 이웃이 뭐라고 할까 봐 내 마음대로 웃을 못 입게 하신다. | 1 2 3 4 5 | 1 2 3 4 5 |
| 15 | 우리 부모님은 친구가 많다. | 1 2 3 4 5 | 1 2 3 4 5 |
| 16 | 우리 부모님은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고, 나의 친구들을 만나보기를 좋아하신다. | 1 2 3 4 5 | 1 2 3 4 5 |
| 17 | 내가 다른 사람들(선생님이나 다른 어른)에게 말하는 것을 겁내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 부모님은 화가 나서 내가 상냥하지 못하다고 하신다. | 1 2 3 4 5 | 1 2 3 4 5 |
| 18 |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 1 2 3 4 5 | 1 2 3 4 5 |
| 19 |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 1 2 3 4 5 | 1 2 3 4 5 |

<부록 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질문지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다투실 때 겪게 되는 일들을 기술한 목록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현재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한 분만 계시다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그 | 약 | 그 |
|----|--|---|---|---|
| | | 렇 | 간 | 렇 |
| | | 지 | 그 | 렇 |
| | | 않 | 렇 | |
| | | 다 | 다 | 다 |
| 1 |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 | 1 | 2 | 3 |
| 2 |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면 보통 잘 해결이 된다. | 1 | 2 | 3 |
| 3 | 우리 부모님은 나의 학교일 때문에 자주 다투게 된다. | 1 | 2 | 3 |
| 4 |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신다. | 1 | 2 | 3 |
| 5 |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나의 기분이 좀 나아지도록 무언가 할 수 있다. | 1 | 2 | 3 |
| 6 |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겁이 난다. | 1 | 2 | 3 |
| 7 |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나의 부모님 사이에 낀 것같이 난처하다. | 1 | 2 | 3 |
| 8 |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 | 1 | 2 | 3 |
| 9 |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주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으신다. | 1 | 2 | 3 |
| 10 |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에도 서로에게 화를 풀지 못하신다. | 1 | 2 | 3 |
| 12 | 우리 부모님은 의견이 맞지 않으실 때 조용히 의논하신다. | 1 | 2 | 3 |
| 13 |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 1 | 2 | 3 |
| 14 | 우리 부모님은 내가 옆에 있더라도 자주 서로에게 나쁘게 하신다. | 1 | 2 | 3 |
| 15 |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 1 | 2 | 3 |
| 16 |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그것은 흔히 내 탓이다. | 1 | 2 | 3 |
| 17 | 나는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을 자주 본다. | 1 | 2 | 3 |
| 18 |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일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대부분 해결책을 찾아 내신다. | 1 | 2 | 3 |
| 19 | 우리 부모님은 보통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다투신다. | 1 | 2 | 3 |
| 21 |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는 서로에게 나쁜 말이나 욕을 하신다. | 1 | 2 | 3 |
| 22 |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나는 대부분 일이 잘 되도록 도울 수 있다. | 1 | 2 | 3 |

| | | | | |
|----|---|---|---|---|
| 23 |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면 나는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렵다. | 1 | 2 | 3 |
| 24 | 우리 엄마는 아빠와 다투실 때 내가 엄마 편을 들기 원하신다. | 1 | 2 | 3 |
| 25 | 우리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이 내 탓임을 안다. | 1 | 2 | 3 |
| 26 | 우리 부모님은 거의 다투시지 않는다. | 1 | 2 | 3 |
| 27 |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 보통 금방 사이가 좋아지신다. | 1 | 2 | 3 |
| 28 | 우리 부모님은 평소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다. | 1 | 2 | 3 |
| 30 |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는 큰소리를 많이 지르신다. | 1 | 2 | 3 |
| 31 |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부모님이 그만 하시도록 할 수가 없다. | 1 | 2 | 3 |
| 32 |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엄마나 아빠가 다치실까봐 걱정된다. | 1 | 2 | 3 |
| 33 |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할 것처럼 느낀다. | 1 | 2 | 3 |
| 34 | 우리 부모님은 집안에서 서로에게 자주 잔소리와 불평을 하신다. | 1 | 2 | 3 |
| 35 | 우리 부모님은 의견이 맞지 않으실 때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적이 거의 없다. | 1 | 2 | 3 |
| 36 |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종종 다투시게 된다. | 1 | 2 | 3 |
| 37 | 우리 부모님은 다투시는 중에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 적이 있다. | 1 | 2 | 3 |
| 38 |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후에도 서로에게 다정하시다. | 1 | 2 | 3 |
| 39 |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에게도 소리를 지르실까봐 두렵다. | 1 | 2 | 3 |
| 40 |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내 탓이라고 하신다. | 1 | 2 | 3 |
| 41 | 우리 아빠는 엄마와 다투실 때 내가 아빠 편을 들기 원하신다. | 1 | 2 | 3 |
| 42 | 우리 부모님은 다투시는 도중 서로 밀치거나 떠민 적이 있다. | 1 | 2 | 3 |
| 43 |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내 자신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 1 | 2 | 3 |
| 44 |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이혼을 하실까봐 나는 두렵다. | 1 | 2 | 3 |
| 45 | 우리 부모님은 다투고 나 후에도 여전히 서로에게 나쁘게 하신다. | 1 | 2 | 3 |
| 47 |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보통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 | 1 | 2 | 3 |
| 48 |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내가 말하는 것은 전혀 듣지 않으신다. | 1 | 2 | 3 |

<부록 5>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질문지

다음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때까지 어떤 행동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을 잘 읽어보고 과거에 나는 얼마나 이런 행동이나 느낌을 가졌는지 표시해 봅시다.

| | | 전혀 아니 다 | 약간 그렇 다 | 보통 그렇 다 | 자주 그렇 다 | 항상 그렇 다 |
|----|---|---------------|---------------|---------------|---------------|---------------|
| 1 | 아파서 학교에 결석하는 날이 많았다. | 1 | 2 | 3 | 4 | 5 |
| 2 | 아파서 양호실에 가는 적이 많았다. | 1 | 2 | 3 | 4 | 5 |
| 3 | 병원에 가도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잘 아팠다. | 1 | 2 | 3 | 4 | 5 |
| 4 | 약물을 자주 썼다. | 1 | 2 | 3 | 4 | 5 |
| 5 | 어둠을 무서워했다. | 1 | 2 | 3 | 4 | 5 |
| 6 | 나나 부모님이 항상 자기 전에 침대 밑이나 옷장을 확인해 보았다. | 1 | 2 | 3 | 4 | 5 |
| 7 | 잠자리에 들때면 동물인형이나 담요, 장난감을 꼭 안고 잤다. | 1 | 2 | 3 | 4 | 5 |
| 8 | 개나 고양이, 기타 애완동물을 무서워했다. | 1 | 2 | 3 | 4 | 5 |
| 9 | 잘 모르는 동물을 길거리나 다른 사람의 집에서 만나면 두려워했다. | 1 | 2 | 3 | 4 | 5 |
| 10 | 유괴를 당할까봐 아니면 부모님과 헤어질까봐 걱정했다. | 1 | 2 | 3 | 4 | 5 |
| 11 | 어린 시절 부모님이 처음 만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외출할 때면 긴장했다. | 1 | 2 | 3 | 4 | 5 |
| 12 | 부모님이 외출하면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을 때면 부모님이 돌아오시지 않을까봐 걱정했다. | 1 | 2 | 3 | 4 | 5 |
| 13 |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했다. | 1 | 2 | 3 | 4 | 5 |
| 14 | 먹어보지 않던 새로운 음식도 잘 먹었다. | 1 | 2 | 3 | 4 | 5 |
| 15 | 학교에 처음 가거나 학년이 바뀌어 처음 등교하는 날에는 보통 겁을 먹 었다. | 1 | 2 | 3 | 4 | 5 |
| 16 | 학교나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아픈 체한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 | | | | | |
|----|--|---|---|---|---|---|
| 17 | 교단 앞으로 불려나갈 때면 긴장되었다. | 1 | 2 | 3 | 4 | 5 |
| 18 | 답을 알고 있더라도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긴장되었다. | 1 | 2 | 3 | 4 | 5 |
| 19 | 발표를 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때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선생님이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 | 1 | 2 | 3 | 4 | 5 |
| 20 | 수업시간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였다. | 1 | 2 | 3 | 4 | 5 |
| 21 | 쉬는 시간에는 반에서 주류가 되는 아이들과 잘 놀았다. | 1 | 2 | 3 | 4 | 5 |
| 22 | 여럿이 모여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 1 | 2 | 3 | 4 | 5 |
| 23 | 내 또래의 새 친구 만나기를 좋아했다. | 1 | 2 | 3 | 4 | 5 |
| 24 |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목소리가 잠기거나 떨리는 편이었다. | 1 | 2 | 3 | 4 | 5 |
| 25 | 나는 인기가 있었다. | 1 | 2 | 3 | 4 | 5 |
| 26 | 알레르기나 불면증, 변비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하거나 고생을 하였다. | 1 | 2 | 3 | 4 | 5 |
| 27 | 불을 켜 놓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다. | 1 | 2 | 3 | 4 | 5 |
| 28 | 여럿이 노래를 부르거나 노는데 잘 참여하였다. | 1 | 2 | 3 | 4 | 5 |
| 29 | 쉽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 1 | 2 | 3 | 4 | 5 |
| 30 | 친구나 가족에게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 1 | 2 | 3 | 4 | 5 |